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학적 특성 연구

- 형태 표현을 중심으로 -

채금석·변영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I. 서론

20C 이후 文化와 藝術의 전반적인 특성은 여러 장르간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혼합·붕괴되는 현상을 보인다. 패션의 제 요소와 함께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해온 메이크업 또한 패션의 흐름에 따라 여러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메이크업을 통해 表現할 수 있는 이미지의 美的 의의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본 研究의 目的은 1990년대 이후 패션쇼 메이크업에 표현된 여러 이미지를 反美學的 觀點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동안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反美的 이미지 메이크업의 경향을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형태에 따른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학적 표현

패션쇼 메이크업은 의상의 효과를 極大化시키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만 무대의 성격, 시즌(season), 디자이너 브랜드 및 컨셉을 고려하여¹⁾ 다양한 형태와 색채로 디자인되며, 특히 1990년 이후에는 형태 파괴·왜곡·기형·불완전성 등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醜의 미가 패션과 메이크업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본문에서는 패션쇼 메이크업의 反美的 표현을 조형의 기본 요소인 점·선·면·형에 따라 구분하여 메이크업의 표현을 정리하였다. 反美的인 메이크업의 형태는 주로 대칭·비례·균형·조화 등의 통일성 및 디자인 원리를 파괴하는 實驗的 성격을 띄는데 첫째, 한 부분만 강조·과장하여 불균형 초래 둘째, 강조에 상반된 축소 및 생략에 의한 부조화 셋째, 비정상적인 추상적·기하학적인 실험적 형태 넷째, 의도적인 파괴와 더럽힘으로 인한 무 형태 등을 들 수 있다.

1. 조형 요소에 따른 분류

1) 점 (spot)

點은 수많은 형태의 근본적인 요소로써 크기나 방향은 갖고 있지 않고, 위치만을 표시하며 주로 원이나 면으로 표현된다. 反美學的 메이크업에서 보여지는 점의 형태는 얼굴의

형태를 돋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의 의도와는 다른 목적을 띤 실험적 형태로 보여진다. 즉, 비대칭적으로 표현하여 불균형·부조화를 초래하며, 이를 통해 전위 및 해체성을 느끼게 한다.

2) 선 (Line)

디자인에서 線은 외양 전체를 지배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문양으로 사용될 때 '굵기나 길이'에 따라 인상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視覺的 요소이다. 선은 공간에서의 방향성과 운동성을 지니며, 그 자체의 독자적인 감정을 갖는데 直線은 속도감·긴장감 등 남성적 요소가 강한데 반해 曲線은 유연함·약동감과 같은 여성적 요소가 강하다. 斜線은 속도감·불안 등의 속성과 함께 종류 및 강약에 따라 동적, 정적인 성격이 복합적으로 표출된다. 주로 이미지를 차용·모방하여 한쪽 부위만을 강조함으로써 불균형을 초래하며 실험적 성향을 보인다.

3) 면 (plane or surface)

面은 점의 확대나 선이 이동한 궤적을 意味하는 것으로 면의 기본 형태인 원형, 삼각형, 사각형은 각각의 상징과 의미를 지닌다. 원은 부드러움과 동적인 느낌을 갖으며, 정방형은 남성적 느낌과 안정감을, 삼각형은 불안정한 느낌을 갖는데 이러한 의미나 이미지와는 무관한 여러 實驗的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굴 형태를 무시·한쪽 부위만을 강조 및 대칭·비례 등의 통일성을 파괴함으로써 추상적·전위적 특성을 보인다.

2. 형태에 따른 분류

形은 어떤 형태의 윤곽 및 경계선이자 지각되는 대상의 本質的 특징의 하나로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면모를 갖는다. 형에는 실제적인 형태를 뜻하는 구상(사실)적인 형태와 그와 반대되는 추상적·기하학적인 형태 및 생략과 파괴를 통한 무형태로 나눌 수 있다.

1) 구상적 형태

동물을 모티브로 하거나 실제 대상을 묘사하되 변형·과장하여 표현한다. 예를 들면 새 눈의 형상을 변형·한쪽만을 과장하여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거나 병적인 기운이 감도는 불건전한 분위기로 묘사하여 혐오스럽게 표현 및 본래의 위치를 무시하고 엉뚱하게 배치하거나 불필요한 선을 가미하여 실험적 기교를 보여준다.

2) 추상적 형태

일정한 사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무제한적으로 표현된다. 즉, 글리터링

(glittering) 질감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차가운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한쪽 부분에 여러 색을 사용하여 추상적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형태를 통해 부조화를 초래함으로써 전위적 특성을 보인다.

3) 기하학적 형태

점·선이나 타투(Tattoo)형태의 기하학적 문양을 차용·변형하여 부자연스러움을 주는 데 얼굴 형태를 무시한 여러 실험적 형태를 통해 얼굴을 미적 대상이 아닌 기호의 형태로 평가 절하시킴으로써 미적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즉, 얼굴의 형태를 모두 무시하고, 점·선·면들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여러 전위적 형태를 무질서하게 배치하여 전위적·해학적으로 묘사한다.

4) 무형태

무형태는 얼굴의 형태 및 윤곽을 생략·은폐함으로써 어떠한 형과 색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중 파괴적 형태는 완성된 형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거나 특정 부위만을 극도로 과장하여 심리적 정서에 충격을 준다. 즉, 눈썹과 속눈썹을 하얗게 만들어 병적·비인간적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이와는 반대로 얼굴 전체를 검게 칠해 이·목·구·비 형태를 은폐시킴으로써 비정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형태를 의도적으로 일그러트려 표현의 부적절함을 보여주거나 얼굴 전체를 어둡고 지저분하게 만들어 뷰티 메이크업과는 상반되는 더러운 메이크업을 선보인다.

Ⅲ. 형태에 따른 패션쇼 메이크업의 반미학적 특성

21세기를 전후로 기존의 전형적인 조화 개념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 과거와 현재, 미와 추, 동양과 서양적 요소 등 상호 대립적인 측면을 결합시켜 그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패션쇼 메이크업은 형태·색채·질감·소재 등의 변형과 왜곡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되는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더해갈수록 反美學的인 극단적 미의식은 더욱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본문에서는 反美學的 메이크업의 外在的 특징인 과장·축소, 변형·왜곡, 생략·은폐, 의도적 파괴 등의 특성을 전위, 풍자, 해체, 빈곤, 비인간화 등 5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전 위 (Avant Garde)

전위란 實驗性을 바탕으로 한 무제한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목·구·비 본래의

형태를 무시하고 좌우 대칭·균형·조화·통일감 등 기존의 디자인 원리를 거부·자유로운 감각과 형태로 묘사하여 부조화와 불균형 등을 유발한다. 전위적 표현의 하나인 추상적 형태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미와 감각에 초점을 두어 다양하게 표현되며, 과장과 극단적 묘사를 통한 非正常的인 형태는 그로테스크(Grotesque)하게 표현되어 혐오감과 기괴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즉, 불필요한 선을 얼굴에 그려 넣는 것에서부터 얼굴 본래의 형태를 생략·은폐하여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2. 풍 자 (Satire)

20세기를 통해 지속되는 歷史的 회의와 불안은 인간의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불신 등의 위기의식을 불러왔으며, 이는 性에 대한 탐미적 경향 및 도덕의 타락 현상으로 나타나고(2) 인체에 인위적·자극적 장식을 하는 등 불건전한 퇴폐적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內面에 잠재되어 있는 성적 욕구나 공격적 성향이 불건전하게 표출되거나 현실에 대한 불만이 비판적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形態와 色이 지나치게 과장된 비정상적 이미지(3)나 혐오스런 문양 및 타투(Tattoo), 병적인 분위기 등으로 풍자하여 反美學的 이미지를 추구한다.(4)

3. 해 체 (De-construction)

여러 장르간의 無制限의 수용은 '경계의 해체'를 야기 시켜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으며, 성·문화·기존 방식의 해체 등 여러 경향으로 보여지고 있다. 메이크업에서는 얼굴 본래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부조화된 형태를 그려 넣거나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등 기존 방식에 반대되는 모든 형태 표현을 뜻한다. 즉, 性의 해체를 의미하는 혼성과 문화적 해체의 관점에서 먼저 앤드로지너스는 직선적인 형태로 男性的 강인함을 표현하거나 얼굴의 곡선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성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핑크는 눈 주변을 웅덩이 모양으로 과장·확대·검게 칠하는 등 하위적 요소를 차용함으로써 형태를 왜곡·변형시킨다.

4. 빈 곤 (Poverty)

더러움에 감추어진 진실을 藝術로 승화시킴으로써 더욱 진실 된 것으로 만들고자하는 과시적 貧困의 表現이라 할 수 있다(5). 메이크업에서는 完成된 메이크업을 고의로 파괴하여 不完全한 美를 추구하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도 표현하지 않고 단지 어두운 색으로 저분하게 만들어 얼룩·오염의 이미지를 갖게 한다. 다시 말해 이는 完成에 대한 방어적·역설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 미의식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5. 비인간화 (Inhumanity)

미래의 비인간적 사이버 이미지나 世紀末의 디스토피아(distopia)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얼굴 형태를 모두 생략하여 불완전하게 만들거나 얼굴을 마스크로 은폐시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를 주기도 한다. 즉, 얼굴 형태를 생략·은폐하여 비인간적으로 묘사한 미래의 사이버 이미지나 눈을 사선의 형태로 과장한 동물·악마적 이미지를 들 수 있는데, 사이버적 이미지는 형태에 의한 표현보다는 광택 소재인 글리터링(glittering) 및 펄·반짝이는 소재⁶⁾를 발라 차갑게 묘사하는 등 질감과 색을 활용해 기이할 정도로 하얗게 誇張한다.

V. 결 론

1990년 이후 다양한 패션 경향과 함께 실험적 메이크업이 시도되기 시작하면서 반미학적·충격적인 醜의 美가 메이크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反美學的 개념을 중심으로 메이크업의 美的 價値를 살펴보는 것은 이를 통한 표현 범주를 확대하고,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未來의 반미학적 패션과 메이크업을 예측·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 메이크업의 형태에 표현된 반미학적 특성은 전위·풍자·해체·빈곤·비인간성 등 5가지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형태에서 뿐 아니라 색채·질감·소재 등 모든 조형요소에 있어 無制限의 실험적 기교가 엿보인다. 즉, 모든 디자인 원리를 무시함으로써 미적 질서를 파괴하는데 얼굴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변형·과장·생략함으로써 위치 전환·의도적 파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어떠한 特性도 존재하지 않는 모호하고 不完全한 추상적·기하학적인 형태 및 무형태를 만들며, 表現 範圍를 무한대로 擴大·새로운 解釋의 可能性을 마련하는 것이다. 21C를 전후로 해서 보여지는 차이는 추상, 플라쥬, 그래픽 메이크업 등 실험적 형태의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현이 더욱 廣範圍해졌다는 점이며, 이는 문화 전반에 걸쳐 ‘다원성’과 ‘불확정성’을 基盤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影響이 계속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희숙, 이연희, 이화진(2001). 뷰티&스페셜 메이크업. 서울: 출판사, pp.66-68.
- 2) 김현미(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장미숙(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현미(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5) 정진영(2002). 벨기에 패션 디자인의 반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송영경(1999). 현대 복식에 나타난 디스토피아 경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52-53.